

2026년 3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지에스리테일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6.3.27	강서N타워	7/10	1	6	14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심재웅, 정사강, 서현선, 한명삼, 김민정
최정혜, 신영수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허남준(사업지원부문장)
- 경영진 외 : 이준호(심의팀장), 오주연(부장), 남효주(매니저)
채호석(방송사업지원팀장), 오세영(부장), 박인진(매니저)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편성	채널 구성·운영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	-	-	-	-	-	10	10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0	-	-	10

*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수용비율 기준으로 평가(활용비율 0%는 0점)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방미심위 조치사항	(한명삼) 사회적 논란 발언에 대한 출연 제한은 표현의 자유와 기업 책임 사이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보임			
방미심위 조치사항	(한명삼) 일부 민원이 전체 시청자 의견을 대표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다양한 시청자 의견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청자위원회에서 제시된 출연자 관련 사회적 논란 대응, 출연 기준의 일관성 확보, 민원 해석 기준, 소비자 인식 및 브랜드 영향 고려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함. 이에 따라 출연자 관련 이슈 발생 시 단순한 법적 기준뿐 아니라 시청자 인식, 사회적 분위기, 민감도, 브랜드 및 상품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내부 출연 기준 및 의사결정 절차를 점검하여 적용함. 또한 민원 건수 중심이 아닌 내용의 중요도와 파급력을 함께 반영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아울러 출연자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출연 및 편성 결정 시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 심의 절차를 운영 중이며, 협력사와의 사전 소통을 통해 출연자 이슈에 따른 편성 운영 방향을 조율하고 있음. 해당 시청자위원회 논의 결과는 관련 제작 및 편성 부서에 공유 완료하였으며, 동일·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시청자 오인 및 소비자 불편 발생 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있음.		
방미심위 조치사항	(김현오) 출연 제한과 관련하여 사전 기준과 개별 판단 간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			
방미심위 조치사항	(한명삼) 출연자 관련 이슈가 반복되는 만큼 관련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정비 필요			
방미심위 조치사항	(박상오) 법적 위반 여부 외에도 사회적 논란 등에 대한 판단 기준 필요			
방미심위 조치사항	(서현선) 위법 여부와 별개로 사회적 민감성에 대한 판단 기준 필요			
방미심위 조치사항	(신영수) 출연 제한이 기업 입장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방미심위 조치사항	(최정혜) 개별 논란 대응보다는 일관된 기준 마련 및 매출·브랜드 영향 고려 필요			
방미심위 조치사항	(서현선) 규제보다는 관리 및 판단 기준 중심의 접근 필요			
방미심위 조치사항	(심재웅) 발언 영향 및 성격을 고려하고 계약 단계 관리 필요			
방미심위 조치사항	(정사강) 민원 수가 아닌 일관된 기준에 따른 운영 필요			
방미심위 조치사항	(김민정) 소비자 신뢰·윤리성 기준 마련 및 계약 반영 필요			
총 건수		12건	2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 '26. 01. 01.~ '26. 12. 31.)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윤경희	751216	現 중앙일보 이노베이션랩 부장	-	1년
김호중	670707	現 시민 옴부즈맨 대표	-	1년
서아론	840430	現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부장	-	1년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 공개
- <http://www.gsretail.com/gsretail/ko/footer/about-gsshopviewers>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총선임기간)
위원장	최정혜	•現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現 한국유통학회 이사	한국유통학회	유통단체	(‘25.10~’27.09)
부위원장	한명삼	•現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본부장 •現 사단법인 로템복지회 감사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사회소외 계층	(‘25.10~’27.09)
위원	심재웅	•現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前 한국방송학회 총무이사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 시민학술	(‘25.03~’27.02)
위원	정사강	•現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前 한국언론학회 총무이사	한국언론학회	언론관련 시민학술	(‘24.10~’26.09)
위원	신영수	•現 경북대 법과대학 교수 •現 한국유통법학회 이사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단체	(‘25.10~’27.09)
위원	서현선	•現 한양대 사회혁신융합전공 겸임교수 •現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부모단체	(‘25.10~’27.09)
위원	김민정	•現 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 •前 한국소비자업무협회 회장	한국소비자업무협회	소비자보호 단체	(‘25.10~’27.09)
위원	김다래	•現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 팀장 •前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정위 간사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소비자보호 단체	(‘25.10~’27.09)
위원	김현호	•現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5.10~’27.09)
위원	박상오	•現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5.10~’27.09)
변 동 사 항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방미심 위 조치 사항	(최정혜)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우며, 고령의 전문가 출연으로 신뢰도가 높아져 오인 가능성이 있음. 또한 성분 구성상 실제 체감 효과와 특정 성분 간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소비자가 효능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음.	일반식품 기준에 따라 건강정보와 상품정보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소비자 오인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표현 방식과 전달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예정임. 관련 가이드를 준수하면서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방식 보완을 추진할 계획임.	○		
방미심 위 조치 사항	(한명삼) 형식적으로는 일반식품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건강식품처럼 인식되어 오인 소지가 있으며, 과도한 안전장치가 오히려 역설적인 인상을 줄 수 있음.	소비자 인식과 실제 전달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표현 방식과 구성 요소 전반을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임.	○		
방미심 위 조치 사항	(정사강) 형식상 문제는 없으나 내용상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알부민 자체에 대한 효능 논란 등 상품 구조적 리스크 존재.	방송에서는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배제하고 있으나, 상품 특성과 관련된 소비자 인식까지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표현 기준을 적용할 예정임.	○		
방미심 위 조치 사항	(김민정) 소비자가 방송을 흘러 들을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식품'임을 보다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음.	제품 특성상 용어로 인한 혼동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일반식품임을 보다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표현 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방미심 위 조치 사항	(서현선) 본질적인 리스크는 방송이 아닌 알부민 자체에 있으며,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적 역할 필요 여부에 대한 고민 필요.	방송에서 전달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되, 소비자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정보 제공 방식 개선과 오인 방지 중심의 운영을 강화할 예정임.	○		
방미심 위 조치 사항	(신영수) 전문가(의사) 출연으로 인해 의약품 수준의 기능을 기대하게 되는 오인 가능성이 있음.	출연자의 역할과 발언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소비자 인식 측면까지 고려하여 전달 방식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방미심 위 조치 사항	(김다래) 건강정보는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었으나 특정 연령층을 타겟으로 한 표현이 마케팅과 혼재된 측면이 있으며, '최고 함량' 등 표현은 비교기준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로 보기 어려움.	건강정보와 상품정보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표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객관적 정보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임.	○		
방미심 위 조치 사항	(김다래) 건강 관련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하며, 특정 질병·계층 타겟 표현은 지양하고 상품정보는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전달 필요.	관련 가이드를 준수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정보 전달 기준을 재정비하고 상품정보 중심의 표현을 강화할 계획임.	○		
방미심 위 조치 사항	(박상오)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점에 대해 높은 주의의무가 필요하며, 주의문구의 크기 및 색상 등 가시성이 부족해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음.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막 크기, 색상 등 표시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예정임.	○		
방미심 위 조치 사항	(심재웅) 권위자 발언에 대한 소비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건강정보가 일반적 수준에 그치고 '섭취 필요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보다 명확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음.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해 일반식품임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는 방향으로 표현을 보완하고, 건강정보 전달 방식도 함께 개선할 예정임.	○		